



제목	Ancient Turkey: A Traveller's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2013. 2. 23.
저자	Seton Lloyd
출판도시	Berkeley
페이지수	248
ISBN 또는 ISSN	978-0520275959

내용 요약

『고대 터키: 여행자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아나톨리아의 땅, 주민, 남은 기념물 등에 관한 안내서이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안내서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로 32년을 보낸 저자 로이드가 자신의 고고학적 유물을 공유하고자 쓴 글이다. 알라카휘육 무덤 발견, 트로이의 위치, 미다스 무덤의 개봉에 관한 설명이 그것이다. 저자는 차탈휘육에서부터 에페수스의 교회와 바울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의 유물들이 어떻게 터키에 녹아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저자는 선사시대부터 크리스트교 시대까지 터키의 일부가 된 많은 문화를 추적하였다. 히타이트, 마케도니아, 로마처럼 아나톨리아를 거쳐 간 국가들을 서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책은 시대 순으로 총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아나톨리아 지역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 2장은 아나톨리아 지역의 선사시대, 3~4장은 히타이트에 관해 서술하였다. 5장은 수수께끼였던 트로이 지역, 6장은 미다스의 왕국, 7장은 카르케미슈(Carchemish)와 진지르리(Zincirli), 8장은 그리스인의 도래, 9장은 크로이소스의 리디아에 대한 설명이다. 10장은 오랫동안 잊힌 우라르투국, 11~12장은 페르시아 제국, 13~16장은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 시대, 17~20장은 로마 지배 시기 아나톨리아 지역의 유산과 건축물에 관한 서술이다. 짧은 분량에 긴 시기와 많은 국가를 거론하려고 하다 보니 개설서적인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지도와 유적의 사진, 고고학적인 설명은 고대 아나톨리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준다.